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세종에 국민이 있다

보도시점 2023. 11. 28.(화) 11:00 < 11.29.(수) 조간 > 배포 2023. 11. 28.(화)

한-인니, 핵심광물 연구개발 협력 가속화

- 제14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
- 한-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 출범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11.28.(화)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「제14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」을 개최하여,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 양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 간 '한-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 센터'를 11.29.(수) 공식 출범하고, 이를 통해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 제조 공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. 인도네시아는 니켈, 주석 등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,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연구 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한-인니 에너지포럼 : 에너지·광물자원 분야 양국 간 민관 협력채널로 '79년부터 개최되어,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기여

「제14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」에서는 이 외에도 석유·가스,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CS), 수소, 소형원전(SMR) 등 에너지 전(全)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양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수소 생산 신설,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CS) 실증사업 등 탄소 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원전(SMR)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.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·활용 인프라를 인도네시아에 구축하기로 논의함으로써, 향후 우리기업들의 수소차 및 설비 수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 또한, 인도네시아의 유·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전환하는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CS) 실증사업에 대해 협의하였으며, 소형원전(SMR) 등 원전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【붙 임】 제14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 개요
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	책임자	과 장	김재은 (044-203-5240)
	자원안보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정훈 (044-203-524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제14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 개요**

1. 추진 배경

○ 양국 간 **에너지 분야 정책 교류**와 **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**을 위한 정례적 민관 협력채널인 **"제14차 에너지포럼" 개최**

* 한-인니 자원협력위('79년) → 에너지포럼 개편('07년) 이후 매년 개최('09·'17·'19년 제외)
수석대표 : (한국)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(인니)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청장

* '11.5월 "한-인니 경제협력위원회(장관급)" 설치 이후 동 포럼은 산업협력, 무역투자, 디지털 경제 등 4개 분과위 중 하나로써 금번 포럼결과는 내년 경협(매년 7월 개최)의 의제로 활용

○ 인니는 '21년 기준 **니켈(세계1위), 주석(2위), 금(5위), 보크사이트(6위), 석탄(7위)** 등 **방대한 광물자원 매장량 보유**

* 인니 자원보유 현황(매장량, '21년) : 니켈 21백만톤(22.3%, 세계 1위), 주석 80만톤(18.6%, 세계 2위)

2. 에너지포럼 일정

○ 일시·장소 : '23.11.28(화) 08:30 – 16:00, 애슐리 호텔 자카르타(2F)

○ 참석자 : 양국 정부, 유관기관 등 40여명

– 수석대표 : (한)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
(베)에너지광물자원부 투투카 아리아지 석유가스청장

3. 주요 의제

○ (세션1) 석유·가스·광물 협력

○ (세션2) 전력, 신재생에너지 협력

○ (세션3) 상호협력 구축